

70) 윤곡(尹穀) : 중국 송(宋)나라의 문신으로 몽고병이 쳐들어오자 온 가족이 절개를 지켜 죽었다.

71) 진동(陳東) : 송나라의 문신으로 간신들을 물리치라고 몇 차례 상소하다가 저자거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1. 난리속에 살다보니 백발이 성성하구나  
 몇 번이나 죽으려 했지만 그 뜻을 못 이뤘도다  
 오늘은 참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가물거리는 촛불은 창천을 비추네
2. 요망한 기운에 가려 임금자리 옮겨지더니  
 구중궁궐은 침침하여 햇살도 더디 드는도나.  
 조칙(詔勅)은 이제 다시 있을 수 없으니  
 구슬 같은 눈물이 종이 울을 모두 적시도다
3. 짐승도 슬피울고 강산도 시름하는구나  
 무궁화 이 강산은 이미 사라졌도다.  
 가을 등잔불 아래 책을 덮고 수천년 역사를 회고하니  
 참으로 지식인이 되어 한평생 굳게 살기 어렵구나
4. 일찍이 나라를 지탱하는데 조그만 공도 없었으니  
 이 죽음은 인(仁)이지 충(忠)은 되지 못하리  
 겨우 송나라의 윤곡(尹穀)처럼 자결할 뿐이지  
 송나라 진동(陳東)처럼 의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부끄럽도다.

## 제2절 최근세 이후 광양의 한문학(시) 개요

광양이 고려시대에는 3대 광종(光宗)때 첫 과거에 김책(金策)이 등제(登第)하여 광양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중앙 진출의 초석(礎石)을 다졌다. 그 뒤로 명관으로는 김양감(金良鑑) · 김약온(金若溫) · 김의원(金義元)과 대문장가로는 김황원(金黃元)이 있었으며 고려말까지 명신으로 이무방(李茂芳)이 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적막감마저 없지 않았다.

다행히 조선중기에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가 굴기(掘起)하여 호남삼

걸(湖南三傑)과 호남십육걸(湖南十六傑)<sup>72)</sup>의 발원에 들었다. 위 16걸 중에 호남동부권에서는 오직 신재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구한말에 매천 황현(梅泉 黃玿)(1855~1910)이 고려 김황원(金黃元)이 출생했다고 세전되는 문성봉(文星峰) 밑 석사리(石社里)마을에서 출생하여 32세에 구례로 이사하여 구한말 4대 시인 중 제1인이 되었으나 그는 광양과의 연고를 계속 유지하였다.

즉 그의 제수는 진월면의 순흥 안씨(順興安氏)이고 자부는 중마동(中馬洞)의 진주 정씨(晉州鄭氏)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유년시절에 수학했던 석사리(石社里)의 25세 연장자인 석서 송정호(石西 宋廷浩)와 그 아들 동갑인 후석 송주현(後石 宋柱賢)과 석서의 손자이며 20세 연하인 서과 송하섭(西坡 宋夏燮)(1875~1958)과는 긴밀한 세교를 유지하였다.

위 송씨 가문은 문장가(文章家)로 삼대가 시문에 능했으며 특히 서과(西坡 字는 子行)와는 매천시집에 보면 많은 시의 수작(酬酢)이 있었다. 그러므로 서과는 매천 시풍(詩風)과 시맥(詩脈)을 계승하여 광양에 전파했다고 할 것이나 현재 그 시고(詩稿)의 간행에 기대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緣由)로 선비라면 능히 시작(詩作)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교 명륜당(明倫堂)에서는 시회가 성대히 개최되었으나 일제의 침략과 신학문의 유입으로 한시 문학도 쇠퇴하여 1924년 명륜당 백일장이 폐지되었다. 비록 명륜당 백일장이 폐지된 뒤에 다시 시작활동이 전개되어 춘추로 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926년 이학수(李鶴洙 : 光陽仁西里) · 한채옥(韓采玉 : 光陽 益申里) · 한치숙(韓致淑 : 光陽益申里) · 백낙구(白樂九 : 光陽道月里) · 고익주(高翊柱 : 光陽 竹林里) 등이 중심이 되어 희양음사(曦陽吟社)라는 시인 동우회를 결성하여 매년 춘추로 시회를 열었으니 그 때 회원수는 100여 명이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부터 중일사변과 2차대전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시문활동은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8.15 광복이후 주정수(朱正洙 : 光陽 邑內里) · 박종범(朴鍾凡 : 津月 馬龍里) · 정학기(鄭學基 : 光陽 紗谷里) · 배찬휴(裵贊休 : 鳳岡 具書里) · 박세래(朴世來 : 玉谷 新錦里) 등이 주동하여 운남음사(雲南吟社)라는 시회를 결성하여 100여 명의 회원이 모였으나 한시(漢詩)에 대한 일반사회인의 관심저하로 옛날의 성황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나 지금도 운남음사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

72) 호남십육걸(湖南十六傑) : 둘째 박상(納齋 朴祥)과 그 아우 오봉 박우(五峰 朴祐 「光山」),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 「光陽」), 미암 유희춘(眉巖 柳希春)과 그 형 나옹 유성춘(懶翁 柳成春 「海南」), 학포 양맹손(學圃 梁彥孫)과 그 아들 송천 양응정(松川 梁應鼎 「和順」), 송재 나세찬(松齋 羅世燾 「羅州」), 금호 임형수(鎭湖 林亨秀 「羅州」)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長城」),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海南」), 면양 송순(倂仰 宋純 「潭陽」), 지족암 오겸(知足庵 吳謙 「羅州」), 사암 박순(思菴 朴淳 「羅州 朴祐의 아들」), 일재 이항(一齋 李恒 「井邑 舊泰仁」),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 「長城」)(許筠의 惺翁識小錄에서)

일제 때부터 현재까지 광양출신 인사들의 시문집을 열거하고 한 두 수를 적시한다.

- 1902~1929 : 남씨금양산송추가입본기(南氏禁養山松楸價立本記) ·  
 의령남씨중문재산기(宜寧南氏 門衆財産記)
- 1910 : 신재선생실록(新齋先生實錄) 二卷一冊 崔順泳과 崔鍾秀 等 著
- 1912 : 만참록(萬參錄) 一卷一冊 朴鍾允 著
- 1912 : 수물총명(手物總名) 一卷一冊 朴鍾允 著
- 1925 : 광양군지(光陽郡誌) 一秩二冊 黃承鉉 著
- 1928 : 춘강수서집(春岡壽瑞集) 一卷一冊 朴仁圭 著
- ? : 농계선생유고(壠溪先生遺稿) 一卷一冊 南斗煥 著
- 1932 : 운사시고(雲蓑詩稿) 李鶴洙 著
- 1938 : 희양문헌집(曦陽文獻集) 全四卷 朴鍾凡 編
- 1942 : 감호정광제사아집(鑑湖亭光齊社 雅集) 金在珪 編
- 1952 : 고암집(鼓岩集) 上下卷 黃炳中 著
- 1963 : 송와유고(松窩遺稿) 金正華 著
- 1964 : 완재집(緩齋集) 上下卷 朴賢模 著
- 1976 : 만재집(晩齋集) 徐顯夏 著
- 1977 : 근재집(謹齋集) 上下卷 李敦模 著
- 1977 : 우재시고(愚齋詩稿) 一卷 李準模 著
- 1979 : 술성재 유고(率性齋 遺稿) 一卷 朴禎一 著
- 1984 : 매천전서(梅泉全書) 全 四卷 黃玹 著  
 (全州大學에서 梅泉詩文 等 一切를 集大成)
- 1990 : 죽헌시문집(竹軒詩文集) 一卷 朴世來 著
- 1996 : 의송한시집(毅松漢詩集) 一卷(附國譯) 朴泰相 著
- 2002 : 의송한시집(毅松漢詩集) 二卷(附國譯) 朴泰相 著
- 2004 : 의송한시집(毅松漢詩集) 三卷(附國譯) 朴泰相 著

73) 송정호(宋廷浩) : (1830~1914) 봉강면 석사리 석현 출신이다. 호는 석서(石西)라 하였고 황매천(黃梅泉)이 유연시절에 사사(師事)한 스승으로 시문(詩文)과 한의학으로 저명하였다.

**暮春送黃梅泉** (늦봄에 황매천을 보내면서)

石西 宋廷浩<sup>73)</sup> (석서 송정호)

巾履婆娑帶艷陽  
 飛花繞郭千峰暗

方壺山碧是君鄉  
 春樹連江一路長

樽酒郵亭堪惜別                      風騷湖海尙留香  
空庭盡日無人到                      只聽幽禽就竹涼

화창한 봄날에 수건까지 너풀너풀 하는데도  
망호산(지리산) 푸른데가 그대 골이라고 하는가  
바람에 날린 꽃에 산봉우리 암암하고  
나무 연(連)달아 있는 곳에 길이 길기도 하여라  
술 권하는 길가 정자(亭子)에서 석별 건디고  
시끄러운 세상에 아직도 향은 남아있네  
빈뜰에 찾아오는 사람 없을 것이니  
다만 서늘한 대 숲에서 새 소리만 듣고 있겠네

挽黃進士用其絕筆 四絕句韻(四首中其一)

황진사 절명(絶命) 4절구 시운을 써서 조시(弔詩)를 짓다(4절구중 한절구)

志決成仁蓋有年                      如非素定豈能然  
武翁貞節輝千古<sup>74)</sup>                      世襲雲孫一倚天

살신성인(殺身成仁)하기로 결심한지 여러 해 되었으니  
평소에 결정하지 않았으면 어찌 그럴 수 있으리  
무민공(武愍公)의 정절은 천고에 빛나니  
대대로 이어져 온 후손 하늘에 의지했었네

題華陽洞<sup>75)</sup> (화양동을 제목으로)

率性齋 朴禎一<sup>76)</sup>  
(솔성재 박정일)  
地關華陽洞裏天                      紅羅日月耀朝鮮  
聖恩浩蕩龍灣局<sup>77)</sup>                      義氣崢嶸史筆權  
皇廟威儀星拱斗<sup>78)</sup>                      師門事業水盈淵  
源源一脈自存意                      萬折東歸是百川<sup>79)</sup>



사진3-5 : 솔성재 박정일

74) 무야(武爺) : 무야는 매천의 10대조로 임진왜란 때인 선조(宣祖) 26년(1593) 진주성(晉州城)에서 장렬하게 산화(散華)한 충칭병사 황진(黃進)의 시호(諡號)가 무민(武愍)이기에 그를 높여 무야(武爺)라고 한 것임.

75) 화양동(華陽洞) :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청천면(靑川面)에 있으며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이 은거했던 곳이며 임진왜란때 조선 구원을 단행한 명(明)나라 신종 황제(神宗 皇帝)의 사당인 만동묘(萬東廟)가 있는 곳이다.

76) 솔성재 박정일(率性齋 朴禎一) : (1778~1834) 봉강면 봉당리 출신으로 강재 송치규(剛齋 宋耜圭)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행이 높았다. 유고(遺稿)는 1979년 간행되었다.

77) 용만(龍灣) : 임진왜란때 선조의 행궁이 있었던 곳으로 평안북도 의주군(平安北道義州郡)에 있음.

78) 황묘(皇廟) : 화양동에 있으며 명나라 신종 황제를 향사(享祀)한 만동묘(萬東廟)를 말함.

79) 만절동귀(萬折東歸) : 중국 송(宋)의 학자 여동래(呂東萊)의 시에 강하만절동(江河萬折東)의 글귀가 있는데 이 시구(詩句)는 이를 인용(引用)한 것 같음. 즉 황하와 양자강은 비록 굴절이 있어도 종말에는 동으로 간다는 뜻.

80) 운사 이학수(雲叢 李鶴洙) : 1854년 광양읍 인서출신. 1932년 「雲叢詩稿」를 남긴 학행이 높은 광양출신 인물

81) 향아(姮娥) : 달 속에 있는 선녀(仙女)의 이름

땅이 궁벽한 화양동 하늘에

붉고 고운 일월 조선을 빛내네

성스런 은혜 넓고 큰 것은 용만의 전국(戰局)이요

의기(義氣) 드높은 것은 역사가 저울질하였네

명황제(明皇帝)의 위의(威儀)는 별이 북극성을 받들고

스승이 사업은 물이 연못에 차 있네

근원(根源)에서 흘러온 일맥(一脈)은 뜻이 있으니

일만번 끊어져도 동으로 가는 것이 모든 내(川)이네

### 仲秋月 (중추의 달)

雲叢 李鶴洙<sup>80)</sup> (운사 이학수)

星河澹澹夜如年

皓月無塵照榻前

何事明光多此夕

祇應秋氣滿晴川

樓上佳人情何重

天涯歸客夢相牽

孤懷渺渺憑誰說

只有姮娥恨來傳<sup>81)</sup>

은하수 고요하고 맑아 밤이 낮과 같은데

흰 달 티끌 없어 앞자리 비추네

무슨 일로 오늘 저녁에 밝은 빛 그토록 많은고

다만 가을 기운 청천(晴川)에 가득하네

다락에 있는佳人(佳人)의 정은 많기도 한데

먼 곳으로 가는 나그네는 꿈속에서 볼까...

외로운 회포 누구에게 말할고

다만 향아(姮娥)가 회한을 전해 올뿐이네

謹次 老可齋 金士賢<sup>82)</sup> (삼가 노가재 김사현의 글에 따르다)

素林 朴鍾模<sup>83)</sup> (소림 박종모)

老可扁名屋數間                      隱居行義耀蒼顏  
從學良翁愁白髮                      尋源君子對青山

經營事業於是足                      棲息心機自是閒  
面目雖無前月雅                      百年師表孰堪攀

노가재(老可齋)라는 편액 이름 수간(數間)의 집에서  
숨어살면서 의(義)를 행하니 노안(老顏)이 빛나네  
간옹(良翁=田愚)을 쫓아 학문을 닦았는데 백발된 것 수심하고  
군자(君子)의 근원(根源)을 찾으려고 청산을 벗삼고 있네  
경영(經營) 했던 일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면서 갖는 마음 한가하기만 하네  
얼굴이 비록 전일의 맑음 없어졌으나  
백년의 스승 누구를 받들고...

82) 노가재 김사현(老可齋 金士賢) : 행적은 현재 조사되지 못함

83) 소림 박종모(素林 朴鍾模) : 행적은 현재 조사되지 못함

壽母回甲 (어머니 회갑)

鼓巖 黃炳<sup>84)</sup> 中  
(고암 황병중)

脩竹陰濃日影長                      丹心一室樂無央  
班衣上壽呼千歲                      鶴髮清儀喜兩堂

世亂幸逢山水靜                      家貧猶有酒肴香  
願言朝野昇平後                      享富康寧子姓良



사진3-6 : 오로대

대밭에 그늘 짙고 낮은 길기도 한데  
정성 어린 한 집에 즐거움 다하지 않네  
때때웃 입고 잔 울리며 천세를 부르고  
학발(鶴髮)의 맑은 거동 양친(兩親=兩堂)이 즐거워하네

84) 고암 황병중(鼓巖 黃炳中): (1871~1935) 진상면 비평리 비촌(飛坪里 飛村)마을 출신 유학자(儒學者)로 평생 학문에만 종사하였으며, 유저(遺著)로 고암집(鼓巖集) 상하 2권을 남겼다.

어지러운 세상에 고요한 산과 물을 만나고  
 집은 가난해도 향기 있는 안주 있네  
 원컨대 나라와 백성이 태평한 뒤에  
 잘살고 강녕(康寧)한 자손들의 좋은 세상 되었으면...

85) 백소단(白小丹) : ( ? ~ 1908)소단(小丹)은 구한말의 의병장 백낙구(白樂九, 或은龜)의 자(字)이며 호를 운정(雲亭)이라 하였다. 광무 10년(1906)에 항일기병(抗日起兵)하여 구금(拘禁)되었다가 다음해(1907) 석방되었는데 또 다음해(1908) 정읍(井邑)에서 창의(倡義)하였다가 순국(殉國)하였다. (한말 의병편 참조)

**哭白小丹<sup>85)</sup>** (백소단에게 울다)

正理難勝氣數天                      猶將心力費多年  
 殘生痛哭雲溪上                      霜菊孤燈擬屬編

정의와 진리가 기수(氣數=運數)에 어찌할 수 없어  
 그토록 많은 세월에 심력(心力)을 허비하였네  
 못난 사람 백운산 시냇물에서 통곡하고  
 서리 국화 있는 외로운 등불 밑에서 책에 쓸 것 생각하네

86) 서파 송하섭(西坡 宋夏燮) : (?~1958) 매천 황현이 유년 시절에 사사(師事)했던 석서 송정호(石西 宋廷浩)의 손자로 매천의 20세 후배로 매천의 시학과 시맥을 계승하였다고 함.

**重修鑑湖亭有感<sup>86)</sup>** (감호정 중수에 느낌)

西坡 宋夏燮<sup>87)</sup> (서파 송하섭)

鑑湖亭古茸楹椽                      人事天功兩自然  
 難道山河依舊日                      應令草石感當年

樽前夜淨千峰月                      花底春生一脈泉  
 又賀翁家饒玉樹                      靑氈宿業世長傳

감호정 남아 기둥과 서까래를 갈게 되었으니  
 사람이 한 일과 하늘의 조화(造化)는 모두가 자연스럽네  
 그 때의 산하(山河)를 그대로라 말하기 어려우나  
 다만 풀과 돌을 보고 그 때를 느끼네  
 술자리에 밤은 천봉월(千峰月)에 맑아지고

꽃밀에 붉은 한줄기 폭포수에서 생겨나네  
 주인집 옥과 같은 아들들 많으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家業)을 길이길이 전할 것이네

**挽謹齋 李敦模<sup>88)</sup> (律詩六首中其一)**

근재 이돈모 조문에 만시(挽詩) (6수의 율시 가운데 1수)

自許芳馨一氣同	居然往跡入鴻蒙
桃花春暖傾樽白	梧葉秋晴剪燭紅
我作此詩眞夢外	君從何處臥書中
干戈淹滯殊鄉久	誰復相憐病廢翁



사진3-7 : 근재 이돈모 송덕비

향기로운 동지로 허락 받아  
 그대로 기억되는 지난 일들이 막막하게 되었네  
 복숭아 꽃피는 봄 따뜻하여 술동이 바닥나도록 기울였고  
 오동나무 앞에 날 갠 가을 밤 이야기에 촛불 다듬어 붉게 하였네

내 이 시를 짓는 것은 참으로 꿈에서도 생각 못한 일이며  
 그대는 어디로 가서 다시 책 속에 있을런고  
 난리통에 이 고을 침체되어 있는데  
 누가 이 병든 늙은이 가련히 여길런고

88) 근재 이돈모(謹齋 李敦模) : (1888~1951) 봉강면 당저리(堂底里) 출신으로 평생을 유학에 종사하여 학행(學行)으로 추앙 받아 장에 때 향유(鄉儒)들이 처사(處士)로 명정(銘旌)하였고 유작으로 근재집(謹齋集) 상하 2권을 간행 하였으며 마을에는 송덕비(頌德碑)가 있다.

**次轟石樓原韻<sup>89)</sup> (축석루 원운에 따름)**

金正華<sup>90)</sup> (김정화)

淸江一曲抱城流	憶昔干戈漲晚洲
壯士名高湖上廟	騷人興爛月明樓
堂堂節義千秋史	烈烈忠魂萬古愁
白面書生何所用	只將詩軸伴春遊

89) 축석루(矗石樓) : 진주(晉州) 암강변에 있음.

90) 김정화(金正華) : 행적은 현재 조사하지 못함



맑은 강 한 굽이 성(城)을 끼안고 흘러가는데  
 옛날 창검(槍劍)이 물가에 가득했음을 생각해 보네  
 장사(壯士) 이름 높아 강(江) 위의 사당에 피셨고  
 시인이 흥겨워함은 달 밝은 다락이네  
 당당한 절의는 천추 역사에 빛나고  
 열렬한 충혼은 만고의 수심이네  
 백면서생 어디에 쓸려고  
 시축(詩軸)을 들고 봄을 즐겨 놓고만 다니니…

91) 서현하(徐顯夏) : 행적은 현재 조사되지 못함

前江對月 (앞강에 달이 뜨다)

徐顯夏<sup>91)</sup> (서현하)

夜靜魚登釣                      天虛月滿舟  
 東湖雲水地                      隨影上江樓

밤은 고요한데 고기는 낚시에 오르고      하늘은 비었는데 달은 배여 가득하네  
 동쪽 호수 구름과 물뿐인데                  그림자 따라 강다락에 올라 본다

92) 요수재(樂水齋) : 경주시 문화예술과에 전화로 알아보았으나 알 길이 없다고 함.

93) 박치규(朴致圭) : 행적은 현재 조사되지 못함

樂水齋(慶州)<sup>92)</sup> (요수재(경주))

朴致圭<sup>93)</sup> (박치규)

齋室新修揭舊名                  風前燕賀羽儀輕  
 璉瑚悅忽峯頭色                  寒水慙憇洞裡情

先祖遺扁遺世訓                  令孫肯構繼家聲  
 使知有本盈科進                  思義東都幾後生

재실(齋室)을 수리하여 옛 편액(扁額)을 걸어두니  
 산들바람에 하려하는 제비 가볍기만 하여라  
 산호 같이 황홀한 것은 산색이요  
 물 같이 은근한 것은 마을의 정이네

선조의 편액은 세상에 남긴 훈계이며  
 자손이 보존하는 것은 가성(家聲)의 계승이네  
 근분을 알게 된다면 과거(科擧)도 많이 나올 것인데  
 경주(慶州=東都)에 의(義)를 생각하는 후생 얼마 되느고

曦陽十景 (희양10경)

緩齋 朴賢模<sup>94)</sup> (완재 박현모)

一. 雲山晴嵐 (1. 백운산의 고운 아지랑이)

連峰疊疊作層屏      上界虛明下界青  
 始起如烟終似海      天工造化付山靈



사진3-8 : 완재 박현모

연이은 산봉우리를 겹겹이 병풍을 들렀으니  
 위아래가 밝고 푸르기만 하구나!  
 처음에는 연기 같더니 마침내 바다를 이루었으니  
 하느님의 조화는 산신령에게 부쳤구나

二. 射亭春樹 (2. 궁도장의 봄 나무)

貫革聲高落晚風      少年踊躍喜春融  
 晴光依舊山河變      何事行吟綠樹中

살랑이는 바람결에 과녁을 뚫는 소리 높고  
 소년들은 뿔 듯이 무르익은 봄을 기뻐하는구나  
 좋은 풍경 옛과 같지만 산하는 변했는데  
 무슨 일로 녹음 속에 시 읊으며 거닐고 있는가.

三. 馬老落照 (3. 마로산성에 지는 해)

松陰高下夕陽晴      頽石崩崖證舊城  
 山色終無今古異      如何往跡不能明

솔 그늘에 저녁 노을 곱게 피니      무너진 돌 비탈이 옛 터를 증명한다  
 산맥은 옛과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가는 자취는 밝힐 수 없느고

94) 완재 박현모(緩齋 朴賢模) : (1880~1963) 봉강면 봉당리 조양(鳳堂里 朝陽) 마을 출신으로 평생을 유학과 시문에 종사하였으며 유저(遺著)로는 완재집(緩齋集) 상하 2권이 있다. 희양10경시는 1930년대 전반기에 작시한 것으로 추정함.

四. 文星曉雪 (4. 문성산(일명=一字峰)의 새벽 눈)

文山南出最嶮向      曉月蒼蒼霽後新  
懷古人生閒不寐      故留積雪起精神

문성산이 남쪽으로 솟았는데 가장 우뚝하고  
새벽달빛 창백하게 개인 뒤에 새롭구나  
회고(懷古)하는 인생은 괜히 잠 못 드는데  
쌓인 눈을 일부러 남겨 정신들게 하는구나

五. 松川丹楓 (5. 송천사지와 동곡계곡의 단풍)

雲山秋色最嬋妍      楓樹川回倒立天  
草木至今有精彩      空留學士讀書年

백운산의 가을빛이 가장 아름다웁고  
불개 탄 단풍나무는 시냇물에 거꾸러져 있구나  
초목은 지금도 정기가 있는 빛을 내고 있는 것은  
공연히 학자(최신재=崔新齋)가 책 읽던 그 세월을 남기고 있기 때문일까

六. 吉島漁火 (6. 길호섬 앞 바다의 고기잡이배 불빛)

島回雲濕亂帆斜      漁火紛紛夜色多  
政是浦村燈滅後      潮隨月上泛人家

구름은 어지러이 돛대에 비끼고  
고기 잡는 불빛은 찬란하게 밤 빛을 만든다  
포구 촌에 등불이 꺼지고 나니  
조수 따라 달 떠오르자 인가(人家)도 떠 있구나

七. 衣巖晚潮 (7. 옷바위 마을 앞 포구에 드는 조수)

鳧頭白浪暮帆收      兩地潮平不見洲  
案對山村如咫尺      砧聲泛水滿窓愁

오리떼 회유하는 노을진 물결에 저문 돛대 거두어가니  
 조수 밀려 평평한 물 갯 볼 수 없고  
 앞에 보인 산촌이 지척과 같아서  
 다듬질 소리가 창가의 수심만 가득케 하네

八. 鱗津蘆花 (8. 옥곡 · 진상경계의 금촌 마을 앞에 펼쳐진 갈대꽃)

寒潮月上沒漁磯      兩岸蘆花白雪飛  
 中有孤船深不見      蒹葭秋水待人歸

호수에 달 오르니 낚시터 잠겨 있고  
 하얀 갈대꽃이 흰눈처럼 날리는구나  
 그 속에 있는 외로운 배는 깊어서 보이지 않는데  
 가을 물결 바라보며 돌아올 사람 기다리네

九. 望德歸帆 (9. 망덕 포구로 돌아오는 배)

西南山水聚如雲      壟舶漁船趁市分  
 時有漁人待潮落      蘆花月白語紛紛

이 산과 저 산의 물결이 구름 같이 모여들고  
 소금 배와 고깃배가 시장으로 달린다  
 어부들은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갈대꽃 달빛아래 속삭임 들려 오네

十. 蟾江秋月 (10. 섬진강의 가을달)

前波繞去後波撞      萬斛眞珠倒瀉缸  
 方丈仙人知不遠      月明笙鶴下空江

앞 파도가 지나가면 다른 파도가 철썩이고  
 수만 개의 진주가 항아리에서 쏟아진다  
 지리산의 신선이 가까이 있기에  
 신선이 피리 불며 학을 타고 빈 강으로 내려오는 구나

95) 우재 이준모(愚齋 李準模) : (1888~1971) 봉강명 봉당리 당저(鳳堂里 堂底) 출신으로 유학(儒學)에 중사하고 시문을 애호하였음. 유저(遺著)로 우재집시고(愚齋集詩稿) 1권을 남겼다.



사진3-9 : 우재 이준모 기적비

### 家戒八詠 (집안을 경계한 여덟 가지 읊음)

愚齋 李準模<sup>95)</sup> (우재 이준모)

#### 一. 孝父母 (1.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致愛誠難致敬難      順奉志體十分安  
截軀胎辱傷何甚      不信旋推養子看

사랑과 공경을 다하기 참으로 어려우니  
뜻을 받들고 몸을 편히 되시는데 충분 해야하네  
잉태했을 때의 고생 어찌 그리 심하셨는고  
이를 모른다면 자식 기를 때 알 것이로다

#### 二. 友兄弟 (2. 형제와 우애)

莫如兄弟世皆云      先後雖殊一體分  
常依同案傳衣日      家室諧和父母欣

형제와 같음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데  
선후가 비록 다르나 한 몸에서 갈라졌네  
서로 의지하고 옷도 전해 입으면  
집안이 화락하여 부모가 기뻐하네

#### 三. 敬妻子 (3. 처자식에 엄숙함)

妻子雖卑重且親      承先傳後序天倫  
御家元自敬身始      不溺愛情能幾人

처자식이 비록 낮다하나 중하고 친밀한 것  
조상과 후대를 승계하는데 천륜이 있네  
집안을 이끄는 데는 자신부터 엄숙해야 하는 것  
애정에 빠지지 않는 사람 몇이나 있을런고

#### 四. 慎喪祭 (4. 상례와 제례의 신중)

報本慎終非飾情      禽悲獸祭亦天成  
衰麻~~豆~~多儀節      內外交修可盡誠

근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예절이 중함ियो 외면을 장식하는 것 아니네  
 새도 슬퍼하고 짐승도 제사하는 것은 천성이라네  
 상복과 제기 의식절차가 많으나  
 내외가 함께 성실을 다하는데 있느니라

五. 擇 婚家 (5. 혼가의 선택)

必求其德不求名      家國盛衰由此生  
 憑勢資裝無足恃      得人可許異時榮

반드시 도덕을 구하고 허명(虛名)을 구할 것은 아니니  
 가정과 나라의 성쇠가 이에 있느니라  
 권세와 재물에 빙자함은 믿을 것이 못되며  
 좋은 사람만 얻으면 뒷날의 영화는 틀림없으리...

六. 儉衣食 (6. 의식을 검소)

被茅食實起初生      錦繡膏粱取次成  
 志業須求溫飽外      與奢寧儉本人情

초의목식(草衣木食)은 인류의 시초였는데  
 점차로 비단입고 고량진미 먹게 되었구나  
 큰 뜻은 호의호식(好衣好食) 하는데서 찾는 것이 아니니  
 사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선비의 본심이네

七. 謹言行 (7. 말과 행동의 근신)

言須顧行行思終      先察危微必擇中  
 忠且敬矣如不及      人有未信反諸躬

말에는 행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마칠 때를 생각해야 하느니  
 먼저 위태롭고 세밀한 것 살펴 중용을 택하느니라  
 충직하고 공경하여 좀 불급(不及)한 듯하고  
 남의 신임을 못 얻으면 도리어 반성해야 하느니...

八. 務書農 (8. 공부와 농사에 힘쓰다)

自耕自讀世間珍      勞力勞心莫賴人  
孰不願生三代上      堯舜不必有遊民

일하며 공부하는 것은 세상에 진귀(珍貴)한 것  
힘과 마음을 다하여 남에게 의뢰하지 말라  
누가 요순우(堯舜禹)의 성대(聖代)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으리오 마는  
요순의 성군이라도 반드시 노는 백성은 용서치 아니하리...

96) 의병장 강희보희열형제장군  
(義兵將姜希輔·希悅兄弟將軍)  
: 임진왜란 때 광양 출신의 의병장으로 선조 26년(1593) 진주성 전투에서 산화(散華)하였다. 형제장군은 진주성 창렬사(彰烈祠)에 배향되어 있고 영조(英祖)때 희보는 호조좌랑(戶曹佐郎)에, 희열은 병조참의(兵曹參議)의 추증(追贈)을 받았다. 묘는 봉강면 신촌리(莘村里) 뒷산에 있으며 1974년 묘역을 정화하고 묘비를 세웠다. 묘하에 쌍의사(雙義祠)를 건립하고 현재 시에서 조경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97) 근재 이돈모(謹齋 李敦模) 註 88) 참조.

98) 분양(汾陽) : 중국 당(唐)나라 때 괘자의(郭子儀)(697~781)가 반란을 토벌한 공훈으로 분양왕(汾陽王)으로 봉해진 고사(故事)가 있어서 이 시를 지은 근재는 왜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분기(奮起)한 형제 의병장을 은근히 괘분양(郭汾陽)에 비유한 것.

過義兵將姜希輔希悅兄弟將軍墓有感<sup>96)</sup>

(의병장 강희보·희열 형제장군의 묘를 지나면서 느낌)

謹齋 李敦模<sup>97)</sup> (근재 이돈모)

(倭政時代所作)

義氣兄弟入汾陽<sup>98)</sup>      爲國男兒快戰殤  
不負鬚眉能樹節      何傷體骨未還鄉  
一杯尙式將軍墓      百世惟尊廟宇觴  
東土伊今無勇士      雙魂倚劔哭徊徨

(왜정 시대 지음)

의기의 형제는 괘분양(郭汾陽)이 성(城)으로 들어간 것 같아

나라를 위한 사나이 전사했다 하나 통쾌한 일

늪늪한 얼굴 절개를 세우는데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어찌 몸이 살아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것 슬퍼하리요

한잔 술 올려 장군을 기리고

백세에 사당의 제향(祭享) 존귀한 일 될 것이네

지금 이 땅에 용사 없으니

두 영령이 칼을 잡고 머뭇거리며 울고 계시리...

登文星峰<sup>99)</sup> (문성봉에 오르다)

勵兢進步上峯<sup>100)</sup> 一嘯盤桓恨更新  
白首堪憐曾賞地 青山倚記舊來人

尋泉逕絡荒藤線 研墨岩侵老蘚鱗  
念昔從余吟醉客 幾年南國散風塵

조심하면서 우뚝 솟은 산에 올라  
휘파람하면서 머뭇거리니 한(恨)이 새롭네  
흰머리 되었으니 전에 놀았던 곳 가없고  
푸른산은 옛날에 왔던 사람 기억할는지

샘 찾는 길에는 등(藤)나무 넝쿨 얽혀 있고  
먹물 뿌린 듯 검은 바위엔 이끼가 늙어 있네  
옛날 내 따라 읊으며 놀던 친구들  
몇 년 사이에 풍진(風塵) 따라 세상을 떠났네

99) 문성봉(文星峰) : 봉강 면 소재지 서편에 높이 솟은 봉우리로 일명 일자봉(一字峰)이라고 함.

100) 면궁(勵兢) : 힘쓰고 조심하는 것.

釜山除夜大雨 (부산에서 선달 그믐날 밤에 크게 비오다)

(倭政時 所作) (왜정 때 지은 것) 雨棠 朴鍾凡<sup>101)</sup> (우당 박종범)

殊方轉轉客愁新 況是天明一日晨  
年少風霜誰似我 歲除雨雪却驚人

孤燈厭對屠蘇酒<sup>102)</sup> 萬戶誠祈送舊神  
故國槿花花正晚 無情消息又青春

객지를 전전(轉轉) 하니 수심이 더해만 가는데  
하물며 날센 내일 새벽은 어떠하겠는가  
젊었을 때의 풍상 누가 나와 같으리  
그믐날 밤의 비와 눈은 사람을 놀라게 하네

101) 우당 박종범(雨棠 朴鍾凡): (1898년생) 진월면 마룡리(馬龍里) 출신의 한학자(漢學者)로 1939년 회양 문헌집(暎陽 文獻集) 4권을 편찬(編纂)한 바 있었으며 특히 시(詩)에 조예(造詣)가 깊었다.

102) 도소주(屠蘇酒): 도소(屠蘇)는 후한(後漢)의 명의(名醫) 화타(華佗)가 처방한 연초에 마시는 술에 넣는 약품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도소주(屠蘇酒)를 정초(正月初)에 마시면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장수한다고 한다.



사진3-10 : 회양문헌집





사진3-11 : 죽헌 박세래

103) 봉양사(鳳陽祠) : 광양읍 우산리 광양 향교 앞에 있는 사당으로 구한말에 훼손(毀撤)되었다가 광복후 복원한 사당으로 이 고장 출신으로 기묘 명현인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를 향사(享祀)하고 있음.

104) 죽헌 박세래(竹軒 朴世來) : (1907~2001) 광양읍 죽림리 대실(竹林里 竹谷) 출신으로 시문(詩文)과 서예(書藝)에 조예가 깊었으며 유저(遺著)로 죽헌 시문집(竹軒 詩文集) 1권을 남겼음.

105) 윤환(輪奐) : 건물이 장대하고 아름다운 것.

106) 소광(韶光) : 봄의 화창한 경치

107) 마로산성(馬老山城) : 광양읍 동쪽 마로산(馬老山)에 있는 옛 산성(山城)으로 백제때 축조되었으며 현재는 약간의 성벽만 남아 있음.

108) 의송 박태상(毅松 朴泰相) : (1927~ ) 광양읍 죽림리 죽곡(竹林里 竹谷)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의송 한시집(毅松 漢詩集) 1·2·3권을 발간 하였음.

외로운 등불에 도소주(屠蘇酒) 드는 것 생각 없으나  
 많은 집들 성심으로 지난해의 귀신 보내는 것 밟고 있네  
 고국(故國)의 무궁화 꽃 피는 것 참으로 더딘데  
 무정한 소식은 또 봄이 온다네

重建鳳陽祠<sup>103)</sup> (봉양사 중건)

竹軒 朴世來<sup>104)</sup> (죽헌 박세래)

存廢無常歲月長	復元輪奐耀曦陽 <sup>105)</sup>
令名百世遺芳躅	高德千秋有大章
檻外青山呈瑞色	院中古樹帶韶光 <sup>106)</sup>
景賢并享羹墻地	振作儒風是我鄉

오랜 세월에 존폐(存廢)가 무상했는데  
 크고 아름다운 복원은 희양(曦陽=光陽)이 빛나네  
 큰 이름 백세에 꽃다운 종적 남겼고  
 높은 덕은 천추에 큰 문장(강목부=綱目賦) 있었네

난간 밖의 청산은 상서스러운 빛 나타나고  
 경내(境內)의 오랜 나무 봄빛 화창하네  
 어진이 숭상하여 제사 받들어  
 유풍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 고장이네

登馬老山城<sup>107)</sup> (마로산성에 올라서)

毅松 朴泰相<sup>108)</sup> (의송 박태상)

馬老山城接大荒	濟羅爭霸正茫茫
白苔已覆千痕石	綠野曾經幾戰場
旗幟遺墟飛燕雀	將軍古壁牧牛羊

追嘆同族未歸一 風雨晦冥互伐傷

마로산성 넓은 하늘에 닿았는데  
신라와 백제의 패권싸움 아득하구나  
흰 이끼는 많은 흔적 있는 돌을 덮었고  
푸른 들판은 몇 번이나 싸움터 거쳤는가?

깃발 세웠던 곳에 제비와 참새들이 날고  
장군의 옛벽 밑에 소와 염소를 치고 있네  
동족이 통일되지 못했을 때  
비바람 치며 서로 벌상(伐傷)했던 것을 탄식하네

過梅泉 遺墟<sup>109)</sup> (매천의 옛 터를 지나면서)

南道詞壇石峴村 梅翁高躋問殘存  
文山崛起峰容秀 家垓荒涼境界昏<sup>110)</sup>

交結一邦崇義士 名垂百世樹仁門  
望瞻幽宅無應答 却誦遺詩欲斷魂<sup>111)</sup>

남도의 문단(文壇=詞壇) 석현(石峴)마을에서  
매옹(梅翁=梅泉)의 높은 종적 남아 있는 것 물어보네  
문성산(文星山) 우뚝 솟아 봉우리 빼어났고  
집터는 황량하여 경계가 희미하기만 하네

교제는 한나라의 의를 숭상하는 선비들과 맺었고  
이름은 백세에 인(仁)을 세우는 문에 드리웠네  
묘를 바라보아도 대답 없어  
남긴 절명 시 외우니 정신 아찔하네



사진3-12 : 의송 박태상

109) 梅泉 遺墟(매천 유허) : 매천 황현(梅泉 黃玑)이 출생한 옛 집터는 봉강면 석사리 석현(石社里 石峴) 마을로 매천은 이 마을에서 32세 까지 살다가 구례(求禮)로 이사를 하였다. (註 65) 참조.

110) 家垓荒涼(가대황량) : 집터가 황량해 있다는 것은 이 시를 지을 때인 1999년 5월 당시의 광경이었고 현재는 2002년 광양시에서 시비로 터를 매입하여 생가(生家)를 복원하였음.

111) 遺詩(유시) : 매천이 1910년 구 한국이 일본에 의하여 병탄(併呑)되었을 때 칠언절구 4수(七言絕句 四首)의 시를 남기고 자결하였음.

112) 學士臺(학사대) : 학사대는 옥룡면 선동리(仙童里) 천변(川邊) 위에 있는 암굴(岩窟)로 신재 최산두(崔山斗)가 과거에 오르기 전에 공부했던 곳으로 후인들이 이곳을 학사대라 부르고 있음. 註 31)과 역사 인물편 참조.



사진3-13 : 해공 신익희

113) 申翼熙(신익희) : 1894년생. 정치가. 독립운동가. 호는 해공. 1919년 3·1운동의 도화선을 당기는데 일익을 담당. 1956년 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 동년 5월 5일 호남지방의 유세를 위해 전주로 가던 중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별세. 동년 5월 23일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짐.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1956년 2월 광양 방문하여 광양고을이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예찬한 한시가 광양읍 金瑒毅氏택에 그 원본이 소장됨

114) 雲巖(운암) : 김석주의 호. 광양읍 인서리 출신. 초대 광양군수. 보성군수. 제5대 국회의원 역임. (신익희 선생께서 1956년 2월, 김석주 씨에게 「광양예찬」 한시를 써서 줌)

過學士臺<sup>112)</sup> (학사대를 지나면서)

泰嶽可平海亦翻      不消仙谷讀書魂  
臺前無盡滄溟水      長使後生滌俗痕

큰 산도 고르게 하고 바다도 뒤집을 망정  
선곡(仙谷)에서 글 읽던 녀은 없어질 수 없네  
대(臺) 앞에 끝없이 소리치며 흐르는 물은  
길이길이 후생들로 하여금 속(俗)된 흔적 씻어가네

光陽禮讚 (광양예찬)

(海公)申翼熙<sup>113)</sup> ((해공)신익희)

民國三十八年二月因      結成民主黨事宜  
來全南光陽事畢      宿同志雲巖家  
此地以魚塢柴水自古      有名余親訪此鄉  
實覺名不虛傳      好哉光陽書贈  
所感以化紀念      雲巖<sup>114)</sup> 同志存

민국(임시정부) 삼십팔년(1956년) 2월

(광양) 민주당 결성을 위해

광양을 방문하여 일을 마치고

동지인 운암(김석주)택에 묵으면서

(이곳)광양고을이 고기·소금·나무가 많고 물이 풍부하고 (맑아)

옛부터 살기 좋은 고을로 이름이 났는데

내가 직접 와서 깨달으니 옛부터 전해오는 말이 거짓이 아닌 유명한 고을이구나!

오호! 광양이 참 좋구나!

소감을 적어 기념으로 글을 드리니

운암(김석주)께서 이 글을 보존하시오

柳林亭韻 (유림정운)

石汀李文華(석정 이문화)

柳林深處一高亭 行路時時爲駐停  
 騷客幾多觸咏地 射册無數送迎庭  
 寺鍾曉落山城月 漁笛暝歸獐島汀  
 古道卽今弓矢在 吾鄉安得任飄零

유림 깊은 곳에 정자 높이 솟아  
 가는길 때때로 수레 멈추네  
 얼마나 많은 시객 술마시며 읊었나  
 활 쏘는 벗님네는 무수히 오고갔지  
 새벽 절의 종소리에 산성의 달 지고  
 고기잡이 피리소리 어두운 귀로의 장도 물가 들려오네  
 옛 도는 지금에 궁시만 남아있어  
 우리고을 어찌하여 버릴 수 있나

悟道頌 (오도송)

九山禪師(구산선사<sup>119</sup>)

昔在伽椰 十方斷絕 猶有空見<sup>115</sup>  
 今日白雲 大幾一轉 鎖却空見

悟曰

深入普賢<sup>116</sup> 毛孔裡 捉敗文殊<sup>117</sup> 大地閑  
 冬至陽生松自綠 石人<sup>118</sup> 駕鶴過青山

옛날 가야산에 있을 때 십방과 단절하였는데도 공견(空見)이 있었는데  
 오늘 백운산에 와서 기미(機微)가 전환(轉換)되어 공견(空見)을 물리쳤네.  
 깨닫고 이르노니,  
 깊이 보현보살의 털 속에까지 들어왔고 문수보살의 큰 관문도 없었네  
 동지가 와서 양기 생겨나 소나무 푸르니 스승은 학을 타고 청산을 지나가네

115) 空見(공견) : 불경에서 공(空)이라 함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연기(緣起)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을 말함

116) 보현(普賢) : 보현보살(普賢菩薩)과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준말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은 석가여래의 협사(脇士)로 유명하다.

117) 주석(116)과 내용동일

118) 석인(石人) : 구산선사(九山禪師)를 가리키는 말

119) 九山禪師(구산선사) : 서기1909~1983년 전북 남원군 남원읍 내척리 509번지 출생. 속성은 蘇, 속명은 蘇麟鎬, 법명은 秀連, 법호는 九山, 별호는 石獅子, 아호는 打牛子(또는 조계산 돌맹이). 한국종단 불사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특히 조계산 송광사 방장으로 있으면서 송광사를 重創하였으며, 서기 1957~1962. 9. 1(6년간) 백운산 상백운암에서 修道精進하였음(松廣寺誌)

120) 김성탁(金聖鐸, 숙종 10(1684)-영조 23(1747) 호 齋山)

조선 영조시대의 학자. 본관 義城. 퇴계학맥의 적통(嫡統)인 갈암 이현일의 수제자로 1735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홍문관 교리에 이르렀다. 스승 이현일의 신원을 주장하는 상소로 인해 무고를 받아 1737년 제주로 귀양갔다가 1738년 7월 광양으로 이배(移配)되었다. 1747년 광양 용선암에서 별세하기까지 광양에서 유배생활 중 인근의 선비들과 교유하고 많은 제자를 길렀으며 다수의 저서와 시문을 남겼다. 사후 임금의 특명으로 관직이 회복되었으며 불천위(不遷位)로 모셔지고 있다. 저서 『齋山集』 18권

두류산으로 벗을 보내며 (6수 중 제2수)

金聖鐸(김성탁)<sup>120)</sup>

誰識蟾江病客愁 그 누가 섬진강가 병든 이 마음 알까  
 年年方丈送人遊 해마다 방장으로 유람객을 보내는데  
 精神不如形骸熱 내 마음 몸과 달라 묶여 있지 않으니  
 飛上天王第一頭 천왕봉 제일봉두에 날아서 오르고져

찾아온 벗과 밤을 새우며

門前車馬故鄉人 문 앞에 거마소리 고향에서 오신 벗  
 千里慇懃問苦辛 천리길 깊은 마음 고생하나 물으시네  
 樽酒壁燈連夜話 술 등이 푸른 등불 밤을 잇는 정담 속에  
 不知流落瘴江濱 멀고도 낮은 물가에 외로움을 잊었네

達厚愛蟾江之勝買取一屋子或以價重譏之達厚賦二絕解嘲余戲次其韻

(달후가 섬강의 경치를 사랑하여 집 한 채를 샀더니 어떤 이들은 값을 너무 많이 주었다고 놀렸다. 달후가 두 절구를 읊어 비웃음을 풀었기에 나도 그 운에 장난삼아 차운하였다.)

歲歲江潭費獨吟 여러 해 강담에서 홀로 노래하는데  
 君今來住可論心 이제 그대가 오니 마음을 터놓겠네  
 方知廉價還歸富 싸게 사면 도리어 부자가 되는 거지  
 收得江山不用金 강산을 담는 데는 돈이 들지 않거든